

능소화



대구대학교 자연자원대학
교수 류 장 발

(학명 : *Campsis grandiflora*, 능소화과)

능소화는 여름장마가 거의 끝나갈 무렵쯤인 8월상순 부터 주먹만한 커다란 꽃이 피서 한여름 더위를 씻어 줄뿐 아니라 그 모습이 점잖고 기품이 있어 동양식 정원이나 공공장소의 휴식공간에 잘 어울리는 우리 풍토에 잘 맞는 토착화된 꽃나무다.

대부분의 나무들이 봄에 꽃이 피고 한여름에 몸을 키우면서 다음 대를 위한 씨앗을 여물려 간다. 그러므로 여름철에 피는 꽃나무는 그 희귀성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된다.

능소화는 여름장마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 8월부터 9월 사이에 꽃이 피기 시작하여 10월까지 오랫동안 주먹 만큼한 커다란 꽃송이를 달고 있어서 한여름의 더위를 씻어 줄만하다. 별들한테는 밀원이 부족한 시기라서 아주 반가운 꽃소식이 된다. 잎이 매우 늦게 나와서 죽은줄 알고 잘라내고 나면 얼마후에 새싹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볼수 있다.

능소화는 원래 중국의 강소성 지방이 원산지로 우리 나라에는 언제 들어왔는지 확실치는 않으나 아주 옛날부터 남부지방의 사찰 또는 행세 꽤나 하는 대갓집 앞마당에 심겨진 기품 있고 고급스러운 꽃나무다.



능소화 꽃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 북미 등지에 분포하며, 덩굴성 목본식물로 능소화과에 속하고, 약10m까지 클 수 있다. 지네 발처럼 생긴 흡착뿌리가 줄기에 붙어 있어서 벽면을 잘 타고 올라가는데 담쟁이와는 좀 다르게 부채살 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줄기를 뻗어 나간다. 줄기는 갈색인데 오래 묵게 되면 희갈

색으로 되어 마치 고목나무 처럼 기품이 있어 보기 좋다.

나팔꽃 모양의 꽃은 크기가 6~9cm나 되어 매우 큰편인데 벌들이 깊숙이 파고 들어가 꿀을 가져오게 되니까 몸전체에 화분이 묻게 된다. 꽃의 안쪽은 노란색에 가깝고 겉은 적황색으로 색상이 화려하며, 다섯 갈래로 벌어진 꽃 속에는 암술 한 개와 네 개의 수술이 있고 끝이 구부러져 있다.



능소화 잎



능소화(근경)